

과학·환경 독후감 쓰기

4 학년 3 반 이름 :

읽은 도서명 : 플라스틱 병의 모험



[제목] : 재활용의 필요성

최근 뉴스에서 " 필리핀에 보낸 한국 쓰레기 6500톤 도로 가져가세요!"

라며 필리핀 사람들이 한국어로 쓰여진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나라가 필리핀에 약 6500톤의 쓰레기를 환경부에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수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서 폐플라스틱 수입이 금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보다 절반이상 저렴한 동남아시아로 쓰레가 몰렸 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쓰레기를 버린것이 문제가 아니라 재활용이 가능 폐플라스틱 병 아니라 배터리, 전자제품, 기저귀 등 생활 쓰레기가 섞여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가난 필리핀 사람들이 시위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몰상식 한 나라로 생각 할 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바다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국립공원에서 플라스틱을 먹고 죽은채 발견된 향유로새 사건 한달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북 부안 앞바다에서 잡힌 아귀배속에서 500ml 플라스틱 생수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왜 이런일이 자꾸 생길까요?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생활 쓰레기와 함께 버린다면 생각 없이 아무곳에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다시 우리와 지구생물들을 공격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플라스틱 병의 모험> 책에서는 플라스틱 또는 종이류, 유리병은 재활용 하여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수있다고 설명합니다. 플라스틱은 원유로 만들이집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원유를 끌어올려 플라스틱 조각을 만듭니다. 이조각들은 공장으로 보내 열을 가해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집니다. 플라스틱은 열외용 도시락, 생수병, 음료컵등 우리생활을 편리하게 해줍니다. 편리한 만

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됩니다.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들은 재가공 공장에 가서 잘리고 씻기고 말려 집니다. 그리고 열을 가해 달랑 달랑
하게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압축기를 통과해 면발처럼 길게 만들어 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기도 하고, 의자, 심지어 극 비행사의 훈련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폐타병 하나를 재활용 하면 60와트 전구 하나를 6시간 동안 발광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법 수출까지 해가면서 다른 나라의 보내는 걸까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아이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아이들은 쓰레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아이들은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보다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환경문제에 관심 가지고 알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시간에 실험하고 관찰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공부를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은 하루아침에 발전
하고 있지만, 환경을 위한 기술은 아직 발전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5G도 좋지만
환경을 생각하는 기술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기술도 생각하고 이 기술들이 발전해서 개
끗한 세상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